

청렴 상식이 쏙쏙!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고객이 통화 후 남기고 간 100원 미만의 '낙전'만 해도 연 14억 원에 육박했던 공중전화의 황금기, 전화국에 입사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

잡근직(계약직)이었던 그가 맡은 일은 공중전화에서 견어 온 집금통(돈통) 안의 동전을 세는 일이었습니다. 출근하지 보름쯤 지난 어느날 업무를 잘 챙겨주던 선배가 술을 사주겠다고 불려내 "공중전화는 낙전과 불량주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금된 돈 전액을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. 주인 없는 돈을 우리가 좀 가지는게 대수냐"며 "좋은게 좋다."고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줄 것을 은근 내비쳤습니다. 그 돈이 유혹의 덫이었습니다.

의사의 오진으로 중병을 앓게 된 돌잡이 딸의 병원비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잠시 흔들렸지만, 그는 동네 마지막 훈장으로 청렴과 예절을 곳곳이 지키며 살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

'성인군자는 못 되어도

도둑으로 살지 말자는 삶의 신념이
고작 동전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는가'



결국 선배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고 이 일은 왕따의 도화선이 되어 '그가 뺨뺨을 하고있다'는 주객이 전도된 추문에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

지옥 같은 날을 보내던 중 다가온 재계약 날, 현금을 만지는 자리에 추문이 있는 직원을 돌리 없다고 생각한 청년은 아내 몰래 사물함을 비울 보자기를 준비했습니다.

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. 3명의 재계약 대상자 중 탈락 1순위 일 것 같던 그 만이 재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

알고 보니 일 년 통계로 완성되는 '낙전발생률'이라는 투명한 재계약의 잣대가 있었고 회사는 마지막 한 닢의 동전까지 묵묵히 불입한 청년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. 그는 그로부터 5년 뒤 청렴과 결백을 무기로 내부 공채를 거쳐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.

'구성원 각자 평소 올바른 소신을 지니고
홀연히 다가온 유혹과 핼박 속 선택의 기로에서
자신의 신념을 곳곳이 지켜내는 강직함'이야말로
청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?

✓ 사례 출처: 권익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일반부문 최우수상 수상작
변재영 · 인지열이 인생의 부활

상식이 쏙쏙! 선물이 팡팡! 청렴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조선시대 임금이 집무를 볼 때 곤룡포와 함께 착용했던 이 관모에는 모체의 뒤쪽에 매미날개 모양의 조각이 달려 있으며, 이는 매미의 인내와 무욕을 잊지 않고 선정을 배풀어 달라는 바람을 뜻한다고 합니다. 이 모자(관)는 무엇일까요?

- ① 원유관 ② 면류관 ③ 익선관

※ 힌트 : Monthly청렴 9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
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

- ★ 응모기간 : 2019. 10. 21까지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9월 정답은

② **不立** 이었습니다.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
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. ^^



축!
당첨

박○○(대전), 성○○(고양), 강○○(안동), 성○○(창원),
신○○(정읍), 김○○(의정부), 한○○(서울서부),
안○○(서울중앙), 윤○○(서울북부), 배○○(외부)



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불안감을 갖고 방문하는데,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
입구에서 부드럽게 잘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입구부터 불친절하니 거부감이 들고 좋게 평가할 수
없습니다.

무언가를 처음 맞닥뜨린 이미지는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합니다.
민원인이 접하는 안내실은 검찰청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
좀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

전화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, 갖추어야
할 서류를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. 방문 시에도 너무
친절하게 도와주려 애써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.

순천지청(피해자지원) 담당자의 배려와 친절함 태도에
칭찬을 남겨준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^^

